공공주택 늘려 인구 유입 노력

순창군, 청년·신혼부부 대상 복흥면 공공임대주택 건립

순창군이 도시민의 인구 유입과 지역 발전을 견인할 공공임대주택 건립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올해 초 인구 소폭 증가에 더해 인구 유입이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군은 지난해 7월 38억을 투입해 14세대 규모의 동계면 공공임대주택을 착공하여 올해 8월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지난 6일 착공한 20세대 규모의 복흥면 공공임대주택까지 올해 총 34세대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 건립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민선 8기 공약사업 중 하나로, 총사업비 246억원을 투입해 5년 동안 5개 읍면에 신혼부부 및 청년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저렴한 임대료의 쾌적한 거주공간을 제공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올해 착공된 복흥면 공공임대주택은 복흥면 정산리 319-7번지 일원에 지난해 12월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지난 6일 본격적인 공사에 나섰으며, 오는 12월 완공되면 19평형 12세대, 13평형 8세대 총 20세대로 건립된다.

특히, 복흥면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면 소재지 중심부에 위치하여 농협, 초등학교, 터미널, 보건지소 등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또한, 36대 규모의 주차장이 완비되어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환경으로 귀농 귀촌을 희망하는 타 도시 청년층을 순창으로 유입시키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순창군이 직면한 인구 감소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공공주택 확대는 필수적인 전략이다"며 "이번 복흥면 공공임대주택 건립과 더불어 앞으로 5년간 5개 읍면에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늘려 이를 통해 인구 유입을 유도해 지역소멸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 이백면, 자매결연도시 천천면 방문 상생 교류

상호 시군 행사·현안사업 홍보

남원시 이백면(면장 안동준)은 지난 8일 자매결연도시 장수군 천천면을 방문했으며, 두 기관은 2023년 11월 2일 자매결연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상호 시군 행사 및 각종 현안사업 홍보와 우수시책 공유 등 상생발전을 위한 다방면의 교류를 이어왔다.

이번 행사에서 이백면은 춘향제의 대표 콘텐츠 '춘향제 대동길놀이'에 천천면의 춘향제 대동길놀이 참여 방안에 대한 논의에서 천천면이 참여하기로 약속했다.

이어 천천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한 민원인들에게 제94회 춘향제와 2024 남원세계드론제전, 제32회 흥부제 등의 주요행사를 홍보했다.

안동준 이백면장은 "이번 교류행사를 통해 천천면과 폭넓은 분야별 교류를 협의하는 좋은 기회가 됐다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교류를 통해 이백면과 천천면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남원시 이백면은 춘향제의 대표 콘텐츠 '춘향제 대동길놀이'에 장수군 천천면의 춘향제 대동길놀이 참여 방안에 대한 논의에서 천천면이 참여하기로 약속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경영실습 임대농장 '농업경영인' 22일까지 모집

순창군이 이달 22일까지 임대농장을 경영할 농업경영인을 모집한다.

군은 영농기반 및 경험이 부족한 농업인에게 스마트 온실 운영 및 재배기술 등 영농창업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금과면 매우리 일대에 경영실습 임대농장을 운영하고 있다.

신규 농업경영인을 모집하는 농장은 총 7동이며, 1,280㎡ ~ 2,048㎡ 규모에 딸기, 오이, 감자 등 단년생 작물을 재배할 수 있다.

임차비용은 시설별 연간 128만원~240만원이고, 임대기간은 3년이다.

신청자격은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만 18세 이상~40세 미만의 독립경영 예정자 또는 시설농업 경험이 없는 농업인 중 독립경영 3년 이하 사람이 해당된다.

신청은 순창군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해 임대 신청서와 영농계획서를 제출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친환경농업과 기술보급팀(☎063-650-5632)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청년 농업인들이 경영실습 임대농장을 통해 시설농업 재배기술을 안정적으로 습득하고, 전문농업경영인으로 거듭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 농업인의 유입과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군은 제105주년 오수 3·10 만세운동 기념식 및 재현행사가 오수를 사랑하는 청년회 주관으로 지난 8일 오수면에서 성대하게 펼쳐졌다.

임실군, 오수 3·10 만세운동 재현

제105주년 학생 만세운동 전국 10대 의거지 오수, 희생정신 기려

임실군이 제105주년 3·1 만세운동의 의미를 되새기는 3·10 만세운동 재현을 통해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렸다.

제105주년 오수 3·10 만세운동 기념식 및 재현행사가 오수를 사랑하는 청년회(회장 김학현) 주관으로 지난 8일 오수면에서 성대하게 펼쳐졌다.

오수 3·10 만세운동은 민족지사 손병희 선생으로부터 비령을 받은 오수보통학교 교사 이광수 선생이 주축이 되어 오수지역에서 전개된 학생 독립운동이다.

15일에는 장수와 남원 인근 주민들이 만세운동을 벌였고, 23일에는 대대적인 3·1운동으로 승화되었으며, 이후 오수는 학생 만세운동 전국 10대 의거지로 선정된 독립운동 지역이다.

이날 행사에는 설상희 부군수, 이성재 임실군의회 의장, 손순욱 전북동부보훈지청장, 남궁세창 임실교육장 등을 비롯한 각계 기관 및 사회단체장과 학생, 독립유공자, 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오수 3.1 기념탑 참배를 시작으로 독립선언문 낭독과 3.1절 노래 제창, 만세삼창, 재현행사, 시가행진 등을 진행했다. 역사의 한 장면을 재현하는 공연을 통해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독립운동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

설상희 부군수는 "독립 만세운동의 위대한 역사는 항일 독립 투쟁의 정신적 토대가 되고, 우리 지역 발전의 밑거름이 되었다고 생각한다"며 "이처럼 훌륭하신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을 계승하여 더 자랑스러운 임실을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군, 2024년 지적재조사사업 본격 추진

순창군이 올해 3개 지구(내동, 대가, 두승지구) 1,267필지 49만5,345㎡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의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2030년까지 추진하는 장기 국책사업이다.

군은 2013년 지적재조사 사업을 시작한 이후, 남계1지구를 포함한 총 13개 지구(50개 마을)의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7개 지구(17개 마을)에서 사업이 진행 중이다.

올해 진행될 3개 지구(내동, 대가, 두승지구)에 대한 사업은 지난해 10월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의 3분의 2이상 동의서 징구를 완료하였으며, 4월 초에 전북특별자치도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사업지구로 지정·고시될 예정이다.

아울러, 책임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 전북지역본부와 지난 3월 6일에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현지 조사·측량, 경계조정 및 확정, 조정금 지급·징수, 등기촉탁 등의 절차를 거쳐 2025년 12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 경계분쟁 해소와 재산권 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지역 소식통

임실,제43기 노인대학 입학식

제43기 대한노인회 임실군지회 부설 노인대학(학장 김태진) 입학식이 지난 7일 입학생 137명과 설상희 부군수를 비롯한 유관기관 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임실군노인종합복지관 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노인강령 낭독, 노인대학장 환영사, 유관기관장 축사, 노인대학 학사일정 안내와 특강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를 주관한 이강년 대한노인회 임실군지회장은"학문을 연구하기보다 노년의 건강생활과 교양, 여가 활동, 치매 예방 등 다양한 분야의 강좌를 통해 활기찬 노후를 설계하여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 행감 지적사항 결과 보고 청취

남원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김영태)는 지난 6일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했다.

남원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 김영태 위원장을 비롯한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들은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개선하고 이월 사업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달라며, 김영태 위원장은 시민안전보험은 시민 형평성을 고려해 운영할 것을 주문했다.

김한수 부위원장은 대산 스마트팜 부지 매입에 만전을 기해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소태수 위원은 운봉 준향 토석채취장 지도·감독 철저를 요청하고, 윤지홍 위원은 관광철에 반선 상가 주차난의 해결방안을 촉구했다. 한명숙 위원은 농특산물 전시판매장에 대한 실질적 활성화 방안 마련을, 염봉섭 위원은 저수지 수변 경관 사업 추진 노력을 주문했다.

이기열 위원은 광한루 서문과 국민은행 사거리 사이 지중화 사업 검토를 요청하고, 이숙자 위원은 드론제전 방문객 수의 객관적 데이터 필요성을 강조하고 대산 양돈농가의 악취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